



제 39회

# 평신도주일

2017. 6. 4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5.29(월) ~ 6.3(토)

- 5.29(월)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 5.30(화) 이렇게 살겠습니다
- 5.31(수) 겸손하게 하소서
- 6. 1 (목) 주님의 교회를 위한 중보를 원합니다
- 6. 2 (금) 오직 주의 은혜로
- 6. 3 (토) 제가 원하는 것

■ 주관\_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 주최\_지방 사회평신도부

# 제39회 평신도주일

## 성수를 위한 자료집

I. 평신도주일에 즈음하여 .....	2
II. 평신도주일의 의의 .....	4
III. 설교자료	
1. 증인의 삶을 사는 평신도가 되라 .....	6
2. “아멘”으로 고백하는 기적의 삶 .....	11
IV. 예배자료	
1.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	15
2. 예배문 .....	22
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	24
VI.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	29
VII. 100만 전도운동 .....	32
VIII. 교인생활수칙 .....	37
IX. 첨부자료 .....	38

##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



전명구 감독회장

오늘의 감리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섬겨 오신 평신도의 헌신과 충성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인 저도 이리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충성을 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슬로건으로 당선되어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100만 전도운동’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감독회장 직속의 ‘100만 전도운동 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큰 교회, 중형 교회, 작은 교회 등 교회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감리교인들은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다시 부흥하여 이 시대와 민족을 책임지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909년에 시작된 ‘100만 구령운동’의 중심에는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조선 감리교인들이 자신의 몸과 시간을 전도를 위해 헌금하듯이 ‘날(田)연보’하였고, 10만일 동안 개인 전도에 헌신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일일이 가정을 찾아다니며 전도했고, 이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조선인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마가복음 70만부를 배포하였으며, 성경보급과 아울러 한글 보급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한글을 모르던 조선인들, 특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여성들의 손에 한글로 복음서가 쥐어진 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전도운동의 의미는 변화된 신앙인들에 의한 조선 민중과 조선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변화를 결단한 기독교인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기로 결단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운동을 통하여 품성의 변화를 일구어내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양하며, 독립의 희망을 다음 세대로 대물림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도운동의 핵심역할을 평신도가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100만 전도운동’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평신도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까지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도 교회마다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신도 여러분의 이런 교회 사랑이 있기에 교회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100만 전도운동으로 힘차게 부흥하여 하나님을 웃게 해 드리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감리교회가 되게 합시다.

감리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평신도의 섬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정과 직장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Ⅱ

# 평신도주일의 의의

김재성 장로  
사회평신도국 총무



2017년 제39회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안식하시는 가정과 경영하시는 사업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6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올해 6월 4일 39회를 맞이합니다.

감리회 교회력에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제정하여 지키게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결단하여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헌신과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평신도인 우리 안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뿐만이 아닌 행동이 따르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신뢰가 회복되며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평신도들은 ‘100만 전도운동’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100만 전도운동’은 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상처를 싸매는 거룩과 사랑 회복 운동입니다. 특별히 2017년 평신도주일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제39회 평신도주일 자료집에는 평신도주일 성수자료와 예배문, 평신도 주간 기도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평신도주간(5월29일~6월3일)을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지켜주시고, 6월 4일(주일)은 평신도들이 주관하는 ‘평신도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해 협력해 주시는 연회 감독님과 목사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증인의 삶을 사는 평신도가 되라

사도행전 7:1~53



김상현 목사

중부연회 부천동지방 부광교회 담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 머물지 말고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증거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순교한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은 교회 내의 사역을 위한 집사로 선출된 사람으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중 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길을 열었고, 이후 신앙인들의 귀한 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에도 모범일 뿐 아니라 증인의 삶에도 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우리는 스테반을 처음 순교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순교를 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복음증거의 자세는 더욱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설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



(George Bernard Shaw, 1856~1950)는 스테반의 설교가 산만하고 지루하기까지 하며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역사적인 지식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구약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갔다는 이야기나 애굽의 종살이가 430년인데 400년이라고 하는 등 성경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지식을 갖춘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기준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쓰기 보다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를 사용하십니다. 복음전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기 위하여 나무를 심는 일과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전문 산림학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나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심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말을 잘하거나 실력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반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열정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전할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전해야 합니다.

###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스테반의 설교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반의 설교에서 그가 전하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스테반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된 삶이었습니다; 스테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누림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먼저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을 위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늙은 한 사람을 택하여 새롭고 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구원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삶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다가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물려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 **둘째로 오해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오해하고 있음을 바로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유대인만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점이 아니라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율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율법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그들의 오해를 여러 가지 면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비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갈 3:9)

**하나님은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 중 하나가 성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며 신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디에나 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오해는 사람의 신앙을 외식의 신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오면 계시고 밖에는 계시지 않으시다는 생각을 가지면 교회 안과 밖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 **셋째로 죄와 허물을 지적해야 합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오해를 바로 잡는 데 머물지 않고 본질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죄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안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먼저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 천국으로 초청하는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패역한 존재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두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지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단언합니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체가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양심마저 굳어버린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스테반은 유대인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스테반은 단호하게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스테반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책망합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다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알면서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중에는 무너지다 못하여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까지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의를 선언하는 의인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성령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까지 행합니다. 스테반은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스테반을 통하여 바른 평신도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귀한 사역으로 인정을 받으며 밖에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 스테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에 스테반과 같은 귀한 일꾼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아멘”으로 고백하는 기적의 삶

마태복음 27:11~12



윤보환 감독  
사회평신도국위원장/중부연회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 보다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 주셨으며,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활기찬 삶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활기찬 삶의 비결은 대답 즉 고백에서 나옵니다. 질문을 하는 삶은 비판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삶은 활기찬 삶이 회복됩니다.

### 1.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총독이 묻은 말로, 예수님께서서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나오는 대답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통하여 올무로 만드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총독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비판하고 폄하하고 죽

이려는 원인을 찾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평신도들은 신앙의 성숙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질문의 삶이 아니라 대답 즉 고백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왜 이렇게 했어?” 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했네.”라는 대답이 서로를 아름답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증명해 보라는 의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네 말에 고백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네 말을 대답 즉 고백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은 자칫 싸움과 다툼, 그리고 원하는 자신만의 이기심을 드러내어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2.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2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말도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독의 말에는 질문이라도 있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질문도 없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삶 안에 있었습니다. 대답한 사람들 즉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활기찬 삶을 회복하고 주님의 삶을 누렸습니다.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

하여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고기 잡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갈릴리 바다를 잘 알기는 하는 거냐고 질문하면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고백하면서 외치다가 눈을 떴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여 라는 고백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외침이 있었으며 그 결과 예수님의 응답은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면서 기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게 하는 기적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경험하면서 위대한 활기찬 삶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즉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소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신도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임입니다. 성도가 “아멘”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19, 20)

교회는 “아멘”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 “아멘”하는 성도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00만 구령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멘”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아멘”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전도하자! 아멘

기도하자! 아멘

헌신하자! 아멘

봉사하자! 아멘

모든 일에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했지만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전쟁은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 “아멘”으로 답하는 성도가 되어, 일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 1.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 평신도 기도주간 : 5월 29일(월)~ 6월 3일(토) ]

김낙환 목사  
교육국 총무



‘말씀과 기도’로 평신도주일을 준비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회개’ ‘결심’ ‘겸손’ ‘중보’ ‘은혜’ ‘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의 날에 평신도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하루 중 시간을 정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사 주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 18:31(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허물과 지은 죄를 고백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성결(聖潔)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내재한 모든 악한 생각들과 불순한 감정들, 잘못된 욕망과 미숙한 생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시기심과 허영심, 그리고 위선, 거짓과 허위, 남을 속이고 세상에 애착을 갖는 모든 악(惡)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질투와 무관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냉랭함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과 정욕, 분노,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께만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9~13)

오 주님,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도움의 손길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분노에 압도되지 않으며,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위선을 멀리하고, 위장된 평화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속적인 방법들을 거부할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겸손하게 하소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6)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낮아지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 보좌 위에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재(主宰)이십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절인과 문둥병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어린이들의 동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낮아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여전히 내(我)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하심을 배우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주님의 교회를 위한 중보를 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 1:6)

살아 계신 하나님,

감리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평신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보내 주셔서 이 땅에 감리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30여 년 역사 속에 우리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어렵고도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감리교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신도 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감리교회에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리교회를 잘 보존하고 성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감리교회가 실시하는 100만 전도운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땅에 자랑스러운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5~16)

주님, 제가 세례요한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근심과 걱정애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代贖)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因)하여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제가 원하는 것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40~42)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意味)를 갖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知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러나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슴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얻기 위한 지혜(智慧)와 지식을 주십시오. 비록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넉넉함 그리고 신실함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있는 깨끗하고 신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인생의 혼란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을 간직할 수 있음이 참 행복이요 참 평안의 길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2. 예배문

### 평신도주일 공동예배

집례자 : 장로 대표

#### [하나님께서로 모임]

- 전 주 ..... 반주자
- \* 입 레 송 .....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함께
- \* 예배로 부름과 기원 ..... 집례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시편 95:6~7)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국의 감리교회들이 평신도주일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평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경배찬송 ..... 10장 (전능왕 오셔서) ..... 다함께
- \* 말씀교독 ..... 마태복음 6장 (교독문 75번) ..... 다함께
- \* 삼위영가 .....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함께
- 오늘의 기도 ..... 권사 대표
- 주님의 기도 ..... 다함께
- 기도 응답송 ..... 찬양대

#### [말씀의 선포]

- 성경봉독 ..... (1) 구약의 말씀 : 신명기 6:1~5 ..... 집사 대표(여)
- ..... (2) 신약의 말씀 : 누가복음 14: 17~23 ..... 집사 대표(남)
- ..... (3) 오늘의 말씀 : ( ) ..... 설교자

찬	양	찬양대
설	교	설교자

## [감사와 응답]

합심기도	말은이
------	-----

(예배자료로 함께 제공된 주간 기도문의 요일별 주제와 개체 교회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1.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남선교회 회장)
2. 감리교회와 100만 전도운동을 위하여 (여선교회 회장)
3. 교회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청장년선교회 회장)

신앙고백	다함께
찬 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다함께
* 봉 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기도	말은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 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주님의 거룩한 몸 된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 도	목 사
후 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 가. 목적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평신도주간을 지키며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가져 평신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평신도 단체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감리교회의 특별한 신앙실천 운동이기도 합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통하여 평신도들이 교회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나누고 섬기는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나. 방법

- 1) ‘평신도주일’ 광고를 2주 전에 교회주보에 게재하여 전 교인에게 알립니다.
- 2)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5.29~ 6.3)은 자료집에 수록한 “기도문”의 ‘말씀과 기도’로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 3) 개체 교회는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든 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감리회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전도운동에 교회와 평신도들

이 참여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 5) 신앙의 본이 되는 평신도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랑스런 평신도상’을 세워갑니다.

#### 다.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려진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 ① 90%는 지방 평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합니다.
- ② 10%는 본부의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및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에 사용하도록 감리회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평신도주일헌금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 협 1277-17-001024 (예금주: 기독교대한감리회)

#### 라.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① 팩스 : 02-399-4350
- ② e-mail : sa-pyeong@daum.net
- ③ 우편 :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관	프로그램	방 법
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5/29(월) ~ 6/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는다.</li> <li>·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 교인에게 '주간 기도문'을 배부한다.</li> <li>·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li> </ul>
	평신도주일 예배 6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평신도주일 자료집&gt;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다.</li> <li>·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li> </ul>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소년소녀가장 초청행사 등)</li> <li>· 불우이웃돕기 물품전달식(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문의)을 갖는다.</li> </ul>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속의 신앙을 실천하도록 한다. [‘감리교인생활수칙’ 전단지 무료배부(문의 : 02-399-4346)]</li> </ul>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회 ‘평신도재능기부은행’(www.kmcgiftbank.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재능을 기부한다.</li> </ul>
교회	100만 전도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내 교회가 합동 노방전도 때 거리청소를 병행한다.</li> <li>· 100만전도운동본부와 협의하여 전도용품을 지원받아 사용한다. (02-399-2034)</li> </ul>
	평신도상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봉사상, 전도상, 효자효부상 등을 선정하여 지방 연합행사시 시상한다.</li> </ul>
	평신도재능기부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으로 미자립교회 개보수 재능기부 사역을 실시한다.</li> </ul>

### 3. 평신도주일 성수 사례

## 기도로 준비하고 봉사로 마무리한다

— 운산교회 평신도주일 성수

김규세 목사

충청연회 서산동지방 운산교회 담임



우리 운산교회는 6월 첫째 주일부터 셋째 주일까지 평신도주일 특별행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평신도주일을 지킴으로써 평신도들의 신앙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평신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교회의 참여를 바라며, 우리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1. 기도로 준비한다.

6월 첫 번째 주간을 평신도 주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킨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에서는 사회평신도국에서 발행하는 <평신도주일 성수 자료집>의 ‘기도문’으로 기도한다. 또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루 한 번 이상 ‘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 2.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다.

6월 두 번째 주일에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설교 이외의 모든 순서를 평신도들이 담당한다. 예를 들면 대표기도는 장로(목회계획에 따라),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기도(남선교회장), 감리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한 기도(여선교회장), 평신도의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청장년선교회장), 성경

봉독(1.권사, 2.집사), 봉헌찬송(청장년선교회) 순서로 드린다.

주일 오후에는 전교인이 도로로 나가 청소(30분)를 하고, 각 선교회 기관에서 목회계획에 따라 헌신예배를 드린다.

### 3. 각 선교회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평신도 주일이 지난 다음 주간에는 각 선교회별로 봉사활동에 나선다. 각 선교회에서 회비도 사용하지만, 평신도주일에 봉헌한 주일헌금의 50%는 지방에 보내고, 50%는 각 선교회에 나누어 선교회 활성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해를 더할수록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항상 헌금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선교회 활동도 원활히 진행된다.

#### 〈 각 선교회 봉사활동 내용 〉

1여선교회 -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하고 이불 세탁해 드리기

2여선교회 - 장애인 가정을 찾아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주기

3여선교회 - 노인정 청소하고 돌봐드리기

4여선교회 - 반찬봉사

5여선교회 - 일손이 부족한 가정을 찾아 마늘이나 감자를 캐는 등 농사일 거들기

6여선교회 - 독거노인과 함께 식사하기

1남선교회 - 장애인 가정 집 청소와 수리

2남선교회 - 독거노인 집 청소와 수리

청장년선교회 -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 집 청소

특별한 예산이나 일손이 드는 일이 아니다. 기도회로 준비하고, 평신도들이 담당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일로 마무리하면 된다. 작은 교회면 작은 대로, 큰 교회면 많은 프로그램으로, 농촌교회면 일손 거드는 일부터, 도시교회면 길거리 휴지 줍기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평신도주일에 맞추어 한다면 책임의식도 강해지고 교회의 공동체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감리회 사회평신도국은 평신도들의 재능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일 수 있도록 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재능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평신도들의 재능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기부은행 <http://kmcgiftbank.or.kr>]

### ● 재능기부운동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즉 개인이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 은사 등을 필요한 곳에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기부하는 운동입니다.

### ● 재능기부운동의 목적

감리교회 150만 평신도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내외 선교 및 사회봉사 활동 등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하고 감리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① 재능기부자들의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필요한 곳에 연결한다.
- ②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평신도 리더를 세워 자발적인 헌신 봉사를 확산시킨다.
- ③ 선교사역에 필요한 재능을 연결하여 선교비전을 갖게 하며 평신도자원을 동력화하여 교회 부흥에 이바지한다.
- ④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에 감리교회 이름으로 참여하여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
- ⑤ 국내·외 재능기부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 선교에 적극 참여케 한다.


● 재능을 기부하면?

- 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능기부자로 활동하며, 재능을 기부하여 국내·외에 속한 교회,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선교지역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② 본부 사회평신도국은 재능기부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소식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알리고, 기부한 재능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도록 수요자를 연결해 줍니다.

● 재능을 기부하려면?

- ① 홈페이지 : 재능기부은행 홈페이지(kmcgiftbank.or.kr) 접속  
→ ‘회원가입’  
→ ‘재능기부은행 등록하기’ 클릭
- ② 신청서 이메일 접수 : sa-pyeong@daum.net  
▶ 신청서 다운로드 : www.kmc.or.kr / 사회평신도국 / 자료실
- ③ 전화 : 02.399.4349 [ Fax : 02.399.4350 ]
- ④ 우편물 :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 재능기부를 받으려면?

- 홈페이지 :  
- 재능기부은행 홈페이지(kmcgiftbank.or.kr)에 접속  
→ ‘재능기부자’ 클릭  
→ ‘재능기부 받기’에 신청  
▶ 적합한 재능기부자를 연결해 드립니다.

● 재능기부 활동 프로세스



## “어찌 멈출 수 있을까? 전도하자!”

〈100만 전도운동〉의 정신과 뜻대



지학수 목사

100만전도운동본부 본부장

입을 모아 “한국교회는 위기” 라고 말한다. 미래학자 최윤식은 한국교회에 다가 올 세 가지 위기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첫째는 2017~2018년에 다가 올 경제적 위기, 둘째는 2028년 경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하게 될 대량해고 사태, 셋째는 저출산과 연1%씩 교인감소 추세로 인한 교회 공동화의 위기라고 한다. 그리하여 2050년 기독교인은 불과 400만 명 남짓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놴다.<sup>1)</sup> 사실 현실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일 년에 100여 개의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온다. 이 여파는 재물이나 건물만 잃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한다. 우리 감리교회만 보더라도 2009년 1,563,993명에서 2016년 1,397,918명으로 불과 7년 사이에 166,075명이 줄었다. 통계표의 거품현상을 고려하면 현재의 교인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지 모른다.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신교 교파의 교인수가 줄고 있다. 개신교 6개 교파는 2014년 171,031명, 2016년 한 해 동안 200,000명이 줄었다.<sup>2)</sup>

1) 최윤식,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라, 유크 네트워크, 2015년 5월호

2) 구권효, [2015 결산5] 교인 17만 명 감소, 13만이 예정합동, 뉴스엔조이, 2015. 12. 31.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경제적 여유와 여가 문화, 탈종교적 사회현상이라는 외부요건 외에 목회자의 독선과 무리한 건축, 현금 및 낡은 교리 강요 등을 꼽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교회 안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대형교회 뒷자리에 앉아 예배만 드리는 미등록 교인 수가 늘어난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양육은 생각지도 못한다. 젊은 층의 이탈은 더 심각하다. 거의 40%에 달하는 청장년들이 지난 십년 사이 교회를 떠났다. 교회학교는 저출산과 탈기독교 현상으로 인해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허리가 끊긴 한국교회, 우리의 현실이다.

곤혹스러운 오늘의 현상과 불길한 예측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손 놓고 앉아서 다가오는 위기를 그대로 맞아야 하나? 아니면 “그래 더 망해야 된다!”고 비웃고 말아야 하나? 교인은 줄어들고 목회자는 교회 빛을 갇느라 허둥대고 있다. 이러한 때에 “100만전도운동”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교회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몇몇 성장한 교회를 제외하면 서구나 미국교회처럼 노인들만 앉아 있는 양로원교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어린이들이 뛰놀고, 청년들의 노래 소리가 교회를 채우고, 장년들의 열기가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전도하자!”는 요구는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설득력이 있다.

한국 개신교의 전도 역사를 돌아보면, 1907년 평양대부흥 이후 서서히 식어가는 불길을 아쉬워하던 남감리회 소속 선교사들의 산기도를 통해 불길이 다시 점화된다. 그들 중의 한 사람, 매리안 스톡스는 “송도지방에 50,000명!” 전도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남감리교회 연회에서 “200,000명 전도!”로 확장되고, 1910년 가을, 선교사 리드의 제안으로 한국 복음주의선교회연합공의회에서 “백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결의하게 된다. 그 다음 해부터 힘차게 시행되었고, 전 세계를 순회 중이던 부흥강사 채프

만과 알렉산더의 지도하에 한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백만구령운동은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께서는 스톡스를 포함한 젊은 선교사들을 택하셨다. 둘째, 단합된 모습으로 감장 선교사들은 올바른 선교 정책을 택하였다. 단기간에 기대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전도의 열기와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셋째, 선교사들이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참여한 총체적인 전도였다. 바로 여기에서 여성 교육과 여성들의 지도력 향상, 그리고 나아가 평신도들의 리더십이 확고해졌다. 넷째, 백만구령운동을 통해 선교사들은 과감하게 조선인 기독교인들에게 지도력을 이양하였다. 모국어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의 자치와 자립을 허락하였다. 나라 잃은 백성의 자긍심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몸에 새기는 생명공동체로 교회가 거듭났다. 다섯째, 일제의 탄압과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어갔다. 곧, 자치와 자립의 연습을 통해, 민족문화 재건과 보전, 그리고 한글 교육과 한글 보급의 보루가 되었다. 아울러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양하며, 독립의 희망을 다음 세대로 대물림해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양적 부흥이 아닌 내면의 부흥, 리더십의 부흥, 남녀 평등의 부흥, 그리고 민족혼의 부흥의 모판이 되었다.

왜 2017년에 백만인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다. 과연 몇 년 안에 100만을 모을 수 있을까? 토마스 하디의 회심과 평양대 부흥, 그리고 백만구령사업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탈종교적 한국사회에서 이룰 수 있을까? 답은 없다. 하지만 잠들면 죽는다. 오늘날은 좌와 우, 빈과 부로 갈라져서 남의 아픔에 눈 감고 나 하나 살기도 벅차다. 지극히 개인주의화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고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우리 세대에, 4년이나 8년 안에 백만 명을 모으지 못해도 좋다. 하지만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개개인의 삶이 풍성해지고 존재 의미가 충만해진다면?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되돌아와서 교회의 허리를 이루고, 우리 민족에게 비전을 제시하

는 영적-사회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어린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면? 이념과 빈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받은 사랑을 더 낮고 비천한 자리를 찾아 나눌 수 있다면? 주저앉아 문 닫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눈앞의 열매가 있건 없건, 십 년이 걸리든, 이십 년이 걸리든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 멈출 수 있을까?

숫자 100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진정 소중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다보면, 성령께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첫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 실업과 좌절, 그리고 자살 문제에 대해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과 왕따 당하는 이들과 차별받는 이주노동자가 의외로 많다는 현실에 눈 뜰 수 있다. 곧 사회적 관심의 회복이다. 둘째, 생명과 평화를 전하다보면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주어진 오늘의 삶을 즐기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생의 의미와 허망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좌절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자신의 척박한 현실 위에, 생명의 방주를 세우실 것이다. 곧 자기정체성의 자각과 회복이다. 셋째,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단절과 분열의 벽을 넘어설 것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려는 구령열은 결국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는 새로운 생명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연대성의 회복이다. 넷째, 실직과 경제적 위기가 가정불화와 자살의 원인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셨던 청빈의 여유와 겸비함을 가르칠 것이다. 하늘을 품은 자는 땅에 연연하지 않는다. 땅에 살면서 하늘을 누리며, 하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이다. 곧 그리스도 정신의 회복이다.



비어가는 교회의 생존을 위해 시작하는 <100만전도운동>은 결국 기독교의 혼을 다시 되살려서 하늘을 품고 땅에서 겸손과 겸비로 살아가게 도울 것이다. 경제지상주의와 맘몬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해방시키고, 사랑과 평화의 불씨를 영혼에 품고, 또 이웃에게 전하는 이 시대의 꿈이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발 행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행일 2017년 5월 1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399-4346~8 Fax.399-4350

비매품

.....